

# 올림픽은 그저 운동시합이다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는 예상대로 뜨거웠다. 무려 1천억 2000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10만 명의 자원 봉사자가 동원됐다는 개막식의 장관 앞에서 뉘를 잃기도 했고, 날마다 전해져 오는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역시 올림픽은 4년마다 벌어지는 세계인의 한판 축제무대이다. 더욱이 한국은 교역규모 또는 실질적인 국제 이상의 성적을 내며 체육입국의 위상을 과시한다. 모두가 자랑스러워들 한다. 미국, 일본을 무너뜨리는 야구경기에 얼마나 통쾌감이 느껴지는가. 박태환, 장미란 같은 영웅은 경제 불황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신나는 잔치를 마음껏 즐겼고 이제 다음 대회에서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때' 라고 상투적인 예찬론을 펼쳐본다.

## 올림픽 성적과 국가위상

그런데 사실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이다. 만일 종반부 성적이 마냥 저조하여 종합 국가 순위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온갖 종류의 비난과 자성론이 언론에 등장할 것이다. 책임공방과 더불어 또 한 차례 북새통이 벌어질 것이다. 잘 해도 못 해도 열기, 열기가 마냥 뜨겁다. 아무렴 올림픽이니까, 온 세계가 함께 실력을 겨루는 마당이니까 이 뜨거운 열기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나는 지금 이 뜨거운 운동시합 열기가 지겹다는 말을 하고 싶다. 모나고 중뿔난 심성인지는 모

르지만 올림픽이라는 국제운동경기에 쏟아지는 전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가시는가?

어린 시절의 우울한 기억으로 돌아가 본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으니 1960년대 후반기였을 것이다. 어느 올림픽이었는데는 기억나지 않는다. 개막식 행사가 펼쳐지는데 '재팬' 기수가 깃발을 들고 등장한다. 관중석의 박수와 환호. 그 다음엔 물론 알파벳 순서에 따라 '코리아'가 나와야 하는데 어, 한국은 건너뛰고 다른 나라가 나온다. 녹화중계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도 그런 사정을 몰랐던 것 같다. 두 진행자는 더듬거리고 기침을 하며 '참가의 의의' 같은 말을 하면서 어렵게 멘트를 이어나갔다. 사정을 유추해 보자면, 개막식 녹화필름을 수입해서 방송하는데 이른바 '주요국'들의 입장만 편집해서 보내준 필름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왔던 것은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어린 내 마음이었다. 우리나라는 '후진 나라'니까 입장 장면이 생략된 나라 중의 하나인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 '후진 나라'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을 땀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다. 우수한 양정모 선수를 위한 금메달 찬가도 불러졌고 귀국 시에는 연도에 시민들이 늘어선 가운데 카퍼레이드도 펼쳐졌다. 더 이상 '후진 나라'가 아닌 한국은 잘 알다시피 1988년에 개최국이 되어 종합성적 4위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후 가까운 시점에 이런 성적들은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모두

가 잘 안다. 올림픽에서의 위상이 우리에게는 국가 흥망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경제도 스포츠 성적도 지속적인 성장 일로의 과정이었다.

60년대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우리 나라가 개최국이 됐고, 또다시 20년이 지나 중국이 개최를 했다. 20년의 시차, 이것은 흡사 국가 혹은 사회성장 정도를 반영하는 절묘한 타임스케줄처럼 느껴진다. 혹시 IOC에서 그 같은 사정을 정말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닐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 장면을 나도 지켜봤다. 폭죽 쇼 컴퓨터 그래픽이나 개막식 소녀 노래 립싱크 논란, 랑랑의 피아노 연주가 녹음된 가짜연주였다는 지적까지 뒷말도 많지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 것만은 틀림없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그 규모의 과시는 졸부의 허세처럼 여겨질 따름이었다. 베이징의 탁한 대기를 감추기 위해 오염배출 공장들의 문을 닫게 했다는 소식에서는 88 서울 올림픽 때의 각종 규제가 떠오르기도 했다. 20년 전 한국이 외국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동에 가까운 치장과 규제를 시행했듯이 오늘의 중국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민과 더불어 모종의 공감도 가는 대목이다. 88년에 올렸던 우리의 메달 성적이 온갖 무리수를 통해 가능했듯이 중국의 드높은 성적 역시 절치부심과 안간힘의 대가인 것이다.

### 금메달에 가려진 국제적 관심사

아직도 나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일본이 도약하는 기폭제가 됐고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큰 규모의 국제 운동시합이 한 국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설사 그런 면이 있다고 쳐도 그 이후로도 올림픽 행사가 계속해서 국가의 최대 중대사일 수 있을까.

역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세계를 들어올렸다'고 표현한다. 유도에서 승리하면 '대륙을 메쳤다'고 흥분하고 한국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언론은 전한다. 비유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세계의 어디를 들었고, 메쳤고, 또 누가 깜짝 놀랐단 말인가. 정확히 말하자면 장미란, 박태환 같은 뛰어난 운동 선수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런 영광과 자랑스러움은 다른 메달권 국가에도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스포츠 분야에서 능력 있는 선수가 나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이상의 국가적 성공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세계 10권 국가임을 목메어 자랑한다. 경제, 그 중에서도 교역 부문을 말한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자랑한다. 물론 스포츠 분야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는? 지적이고 문화적인, 고급한 영역에서의 우리 성적표는 어떨까? 미국에서 스포츠와 연예오락 분야는 흑인들이 휩쓴다. 그렇다고 미국의 흑인들이 미국을 대표하고 이끌고 압도하는가. 우리보다 올림픽 종합순위가 뒤지는 선진국이 그 순위만큼 우리에게 뒤지는 나라일까.

우리가 '후진 나라'였을 적에 올림픽 금메달은 정말 소중했다. 내 일처럼 기쁘고 경기 상대국 자체를 이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박하고 순수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후지지' 않은 나라들은 가령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벌어진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전쟁을 올림픽 이상의 관심으로 다룬다.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든 모든 국제분쟁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또한 국제관계에 그만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령 세계경쟁이라면 학술적 성과에서, 예술적 성취에서,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스포츠에서의 성취는 그 선수 개인의 성공이지 그 이상의 국가적 성취로 의미가 비약되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국내 어느 대학에도 국제 학계에서 크게 대접 받고 조망되는 학자는 없다. 세계적인 평판을 누리는 작가가 단 한명도 배출된 바 없으며 예술계 전체를 통틀어 해당분야 톱클래스에 오른 인물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유일무이하다. 지금까지 어느 분야의 누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한국식 신문기사는 전부가 허상에 근거한 과장일 뿐이다. 이 같은 탄식은 우리가 더 이상 '후진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다.

운동경기 잘 해서 높은 성적 올리는 일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이상일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선진국을 꿈꾸는 수준이 됐다면 국가적·국민적 관심과 열기의 대상도 변화해야 한다. ㉔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